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ug. 2018 발간년월 2018년 08월(통권 제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원장
Vol. 8 감리 황진희 본부장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홈페이지 www.kmi.re.kr

금주 Contents - **해사법률** 이슈

난민 및 이주민 보호를 위한 해양 산업체 및 국제기구의 움직임

IMO는 혼합 이주에 관한 국제기구 및 해양 산업체간 회의¹⁾ 개최를 통해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검토^{a),b)}

■ 혼합 이주에 관한 국제기구 및 해양산업체간 회의가 IMO에서 2017년 10월 개최되었고, IMO는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논의함

- IMO 주관 하에 IOM, UNHCR, OHCHR, EU NAVFOR, ICS, BIMCO, ITF, IFSMA²⁾ 등의 대표는 2017년 10월 30일 IMO에서 개최한 혼합 이주에 관한 국제기구 및 해양 산업체 간 회의에 참석함
- 본 회의를 통해 참석 기관들은 해상에서의 혼합이주와 해양 관련 산업체 및 국제기구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하지 않은 혼합 이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협의하였음
- 제98차 MSC('18.6.7.~6.16.)는 2016년 9월 19일에 채택된 난민 및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³⁾에 따라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인도주의적 상황과 생명의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유엔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MO를 비롯하여 산업체 및 국제기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해상 측면의 기여가 전 세계 이주자를 구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1) 혼합 이주에 관한 국제기구 및 해양 산업체간 회의 (The Inter-agency meeting with the maritime industry on mixed migration)

2)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 국제이주기구

UNHCR (UN Refugee Agency) : 유엔난민기구

OHCHR (UN Human rights)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EU NAVFOR (EU Naval Forces) : 유럽연합 해군

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국제해운협회

BIMCO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발틱 국제해운회의소

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 Federation) : 국제운수노조연맹

IFSM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hip masters' Associations) : 국제화물취급협력협회

3) 뉴욕 선언 (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 해당 회의는 2018년 12월 난민 및 이주민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려한 세계 협약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두 번의 혼합 이주에 관한 국제기구 및 해양 산업체간 회의 개최를 통해 단순한 문제가 아닌 다양한 문제의 복합성이 논의됨
- 회의에서 논의된 견해 및 결과는 유엔 총회에서 국가 정상들의 승인 하에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에 따라 유엔 회원국 주도 프로그램인 GCM(Global Compact on Migration)으로 옮겨짐
- 2년간의 긴 절차를 통해 2018년 12월 10일과 11일 모로코 마라케쉬(Marrakesh) 지역에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정기적인 이주를 위한 세계 협약 채택을 위한 정부 간 회의에서 난민 및 이주민의 사회문제 등이 논의되고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지중해로 유입된 난민 및 이주민(2018.1월 이후)

국가	비율*	인원 (명)
시리아	13.4%	6,967
기타	11.0%	5,696
이라크	8.5%	4,414
기니	7.5%	3,890
튀니지	6.4%	3,321
말리	6.0%	3,116
모로코	5.6%	2,900
에리트리아	5.5%	2,85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	2,569
아프가니스탄	4.7%	2,444

자료 :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mediterranean>

* 해당 국가 난민 및 이주민 인구/ 지중해 유입 난민 및 이주민 인구(2018년 7월 31일 기준 총 51,917명)x100

<표 2> 연도별 지중해로 유입된 난민의 수

년도	해상으로 유입된 인원(명)	사망 또는 실종 인원(명)
2017	172,301	3,139
2016	362,753	5,096
2015	1,015,078	3,771
2014	216,054	3,538

자료 :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mediterranean>

IMO 및 국제기구는 난민 및 이민자 구조를 위한 회원국 및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의무 및 국제법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하고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함^{c),d)}

■ 국제협약상 이민자 구조를 위해 각 회원국 및 선장들이 따라야 할 의무를 기술한 지침서를 발간했음

- 2006년 이후, 2015년 IMO, UNHCR, ICS는 난민과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실천과 원칙에 관한 주요 동향 및 내용을 담은 지침서⁴⁾를 발간하였고, ICS, ECSA⁵⁾, ITF, INTERTANKO⁶⁾ 등 산업체 및 국제기구는 선원과 구조된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지침서⁷⁾를 2015년 두 번째 에디션으로 발간하였음
- 본 지침서에는 이주자 및 난민들의 구조가 완료되더라도 육상의 하선 등 생계를 지속하기 위한 관련 협상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IMO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여 2004년 관련 해양협약⁸⁾ 개정을 소개함
- 두 지침서 모두 국제법상의 조난자 구조 및 도움 제공 관련 의무 및 정의를 UNCLOS⁹⁾와 SOLAS 명시를 소개하고 선장의 의무와 정부의 구조 조정센터(RCCs ; Rescue Coordination Centres) 의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음
- 또한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과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기본 지침서¹⁰⁾를 통해 선장 및 선원들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조난 중인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나열하고 있음

■ MSC는 해상 밀입국자들의 현황을 보고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GISIS를 통해 회원국 모두가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MSC 95차('15.6.3.~6.12.)에서 IMO, IOM, UNODC¹¹⁾에 의해 승인된 해상 밀입국자들의 사건을 보고하는 새로운 형식을 승인하였고 새로운 기관 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GISIS(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함

4) 난민과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실천과 원칙에 관한 지침서(A guide to principles and practice as applied to refugees and migrants)

5) ECSA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s) : 유럽선주협회연합

6) INTERTANK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 국제유조선 선주협회

7) 선원과 구조된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지침서(Guidance on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seafarers and rescued persons)

8) 1974 해상에서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1979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 협약의 개정안은 2004년 5월에 채택되었으면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됨

9) UNCLOS :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0)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과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들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기본 지침서 (Basic Guidance on the actions to be taken by various parties involved in a rescue of persons at sea)

11)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 MSC 99차와 FAL 42차¹²⁾에서는 IMO 회원국에게 GISIS의 해상 밀입국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도록 권장함

증가하는 난민 및 이민자 수를 고려한 대책 및 정책 수립 필요

■ 증가하는 난민 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및 인도적 보호 차원에서의 갈등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이에 관한 정책이 필요

- 난민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해양 난민 구조상황에도 영향을 끼치고 가장 많은 난민들이 몰리고 있는 유럽연합의 외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난민들의 수용여부를 포함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난민 문제에 대해 국제적 논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유엔난민협약 상 인정하고 우리나라 난민법 상 인정하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로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함
- 아울러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인도적 보호의 명목으로 체류하고 있는 체류자에게 사회적 지원 및 기타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향후 선도적인 난민정책을 세우기 위한 정부의 대처를 검토해야 함

이혜진 전문연구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jinlee@kmi.re.kr / 051-797-4626)

참고자료

- a)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mediterranean> (2018.08.18. 검색)
- b) <http://www.imo.org/en/OurWork/Facilitation/personsrescued/Pages/Default.aspx> (2018.08.18. 검색)
- c) https://refugeesmigrants.un.org/sites/default/files/stocktaking_imo_arbour.pdf (2018.08.19. 검색)
- d) <http://www.imo.org/en/OurWork/Facilitation/personsrescued/Pages/Default.aspx> (2018.08.19. 검색)

12) MSC 99차는 2018년 5월 16일~18일 개최, FAL 42차는 2018년 6월 5일~8일 개최함